



새 시대 대학생의 바람직한 해외연수



김 창 립
대전대 학생복지처장

I. 서론

새 시대(New Age)를 맞아 세계는 국제화, 개방화, 고도산업화, 정보화, 자율화의 주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21세기를 대학의 세기(Century of university)라 지칭할 정도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 중심의 구상과 역할 및 기능이 무엇보다 더 절실히 요망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질 관리와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요구에 따라 여러 형태의 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개방과 대학의 특성화·다양화·자율화 방안을 근간으로 하는 열린 대학 체제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의 해외연수는 국제사회에 대한 시야를 넓혀 주고 현지 경험을 통한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과 젊은 세대인 대학생 상호간의 우호와 국제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문화와 발전상을 외국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의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고, 또한 외국의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위치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대학생들의 최종 과제는 취업이라는 관문을 염두해 두고 있다. 대졸자의 취업률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으로 2001년 2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에 대학생들의 최우선 과제인 취업을 위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학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업을 위한 전공 선택과 외국어 능력의 배양, 즉 외국어가 세계화의 대상이 아닌 도구로서 가장 기본적인 무기일진대,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국어의 정복을 위해, 특히 세계화 시대의 기업 수요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늘어나는 해외연수는 자기계발과 생존전략으로써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II. 본문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대학교육의 개방화·세계화·정보화·국제화를 위하여 세계 여러 대학과의 협력교류를 통한 교환학생제도과 장·단기 어학연수 및 전공별 특성화를 위한 전문 연수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 시대의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국제화 시대의 추세 속에 결국 경쟁을 이겨내는 대학생만이 존립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수하고 능력있는 자기만의 개성있는 질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내실있는 실력 향상과 자기개발만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학생들의 올바른 해외연수를 위하여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교환학생제도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환학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교환학생제도는 대학생들의 폭넓은 시야와 여러 타국 문화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지적 정보화 및 국제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세계를 이끌어 가는 선진국의 청소년들과의 교제를 통해 세계인으로서의 매너와 가치관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 자비로 해외연수를 떠날 때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며, 특히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대학 수업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으며, 순수 어학연수를 위한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전공별 특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 직업연

수도 포함을 하고 있으며, 게다가 학점인정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볼 수 있어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매우 선호하는 해외유학 제도라 할 수 있다.

2.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란 말 그대로 '여행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관광 취업'이라는 뜻으로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인정받게 된다. 또한 그 나라의 문화를 습득하고 해외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전문을 넓힘으로써 젊은이들의 세계화에 일조(一助)하여 왔다. 만 18세에서 25세(제한적으로 만 30세까지도 발급 가능함)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여, 각 해당국에 한하여 평생 1회 발급 혜택이 주어지며, 실제 체류기간은 1년을 인정하며, 체류기간 중 3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하며, 입국 목적은 여행이고, 여행 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도전정신이 강한 젊은이라면 한 번쯤 해 볼만한 연수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 단, 주의해야 할 몇몇 잘못된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 제도는 학생의 본분에 벗어난 규칙을 적용하여(공부보다는 일하는 시간을 대부분으로 할애 : 24시간 중 15시간 이상) 실시하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3. 호주환경자원봉사 : CVA(Conservation Volunteers Australia)

호주 전역에 대한 환경 및 자연보호 활동을 진행 중인 비영리 기구로써, 1982년 설립된 이후 현재 42,000명 정도가 활동 중이며, 주로 영연방 국가와 호주의 자연에 관심이 있는 영어권 국가에서 지원

하는 많은 자원봉사자(Volunteer)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희망자들도 참여가 가능해졌고, 영어권 국가 출신들과 같이 생활하며 그들의 선진화된 환경사업을 통해 그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호주의 대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지고 영어권 친구들과 영어체험과 문화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 팀은 6~10명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인들이 주를 이루며, 요즘 들어 일본과 한국의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각 팀당 호주인 팀 리더가 있다.

비자의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부부 동시참여도 가능하며, 나이 제한은 70세 미만으로 신체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호주 정부의 지원을 50%나 받기에 참가비용이 저렴하고, 호주의 국립공원 및 문화유적지 등을 답사하므로 별도의 배낭여행이나 관광이 필요 없다. 각국의 젊은이들이 팀을 이루므로 서로간의 인간적, 문화적 교류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어느 정도 회화가 가능하다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색다른 경험도 쌓고 본인의 영어 실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제도이며, 자연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라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4. 홈스테이(Home stay)

홈스테이란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는 것으로 '국제민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세계에 있는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그 나라의 가정집에 머무르면서 그 나라의 문화, 예절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며, 어학연수가 발달된 나라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연수 및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나 각 자치단체에서 숙소를 제공, 그 나라에 머무르는 동안의 잠자리와 식사 등을 해 오고 있다.

초기에 홈스테이는 상업적 목적보다는 그 나라의 참모습과 문화를 배우고 가르치는 민박의 형태였으나, 요즘은 유료화 된 하숙집의 개념으로 한 달에 일정한 비용을 내고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는 형태로 되어 있다.

학생들은 가족의 한 구성원처럼 여겨지며 모든 생활 공간, TV, 전화, 세탁 시설, 마당 등 집안의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민박 가정에서는 아침식사를 학생들이 좋아하는 식품을 구입해서 스스로 해먹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재료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있으며, 점심은 대개 도시락으로 간단한 샌드위치나 햄버거 등을 만들어 식사하도록 하며, 저녁 식사는 가족들과 함께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면서 정(情)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처음 도착하여 공부를 시작하고 적응하기까지의 도움을 아끼지 않으며, 처음 도착하면 학생들에게 동네를 구경시켜 주고, 주요 가게, 학교를 가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방법 등을 알려준다.

이 프로그램은 TV방송에서도 방영한 바 있고, 서로 가족간의 왕래(往來)도 맺을 수 있어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으로서 호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5. 단기영어연수과정(Holiday Study Tour Programs)

연수기간이 3개월 미만의 단기과정으로 영어연수와 함께 관광 및 레저 프로그램을 병행하고자 하

는 목적에서 제공되는 과정이다.

대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1~2개월 동안 영어 연수와 여행, 문화, 과외활동 등을 병행하는 과정이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part-time이나 full-time으로 영어연수를 할 수도 있다.

참고로 해외에 연고지가 있는 경우 추천할 만하고, 그렇지 않다면 학교에서 지원하는 과정으로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6. 전공별 특성화를 위한 전문연수과정


직업 또는 진학에 필요한 분야 등과 병행하고자 하는 특수 목적의 다양한 연수과정으로 예체능 영어, 항공학교, 골프학교, 호텔영어, 통역영어, 항공정비, 영어교사 대상영어 등에 관련된 특수 목적의 영어를 교육하는 과정이다.

해외 현지에서 직접 기간을 정해 두고 취업연수를 목적으로 6~12개월 단위로 교육하는 과정으로, 대부분 대학 졸업생 위주로 알선하고 있으며, 전공별 자격증 위주의 학습과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III. 결론

누구나 기회가 있으면 세계를 두루 다녀와야 한다. 우리의 속담에 "白文이 不如一見"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대학생들은 해외연수를 통하여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그 장점을 가려내어 '의식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의 현실에 접목시켜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고(思考)와 판단(判斷)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내 작은 우물 안에서만 큰소리치지 말고, 세계 속의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그들의

이념과 문화유산을 존중하며, 내 것을 돌아보면서 겸손해질 줄 알아야 한다. 내 작은 경험으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세계는 이렇다."라고 단정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나라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으면, 다른 나라에는 에베레스트산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외국 생활이 처음인 사람들은 우선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기가 쉽지만,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외국인들과의 만남을 시도해 보면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효과적인 해외연수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세이므로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힘들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건강하게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며, 규칙적인 생활로 철저히 시간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해외 연수를 마치고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오기 위해서는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김창립

공주사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명지대 체육학 석사, United State Sports Academy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대한청구협회 이사, 대전광역시 체육회 이사, 한국대학정규연맹 부회장, 대전대 체육부장 및 학생복지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스포츠선수의 의학적 지식조사」, *A study of financial management of private university sports program in the republic of korea* 외 다수가 있다.